

모두 발언

2026. 10. 28.(수) 07:30

금융감독원 (11층)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찬 진

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은행지주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AI 기업의 수익성 우려 등
불확실한 금융환경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책임있는 판단과 대응에 따라
위기의 파급효과와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사회가 단순한 경영성과 감독에 그치지 않고 주요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함(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3.9월)

오늘 의장님들과 함께
금융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이사회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주 전반의 IT 보안 대응 역량 제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 침해사고*는
사이버 공격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공격 대상이 비핵심시설**로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 등 쏠업권에 걸쳐 총 16개사(10.14일 현재)

** 영업지원 시스템 등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부수시스템

특히, AI가 해킹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보안 취약점이 쉽게 탐지되고
동시다발적 공격이 상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IT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제거하는
자율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IT 보안을 부수적 업무로 간주하여
규제 요구 사항만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거나,

IT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T 보안은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위한 핵심 업무라는 인식 하에
이사회가 IT 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련 중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는
사외이사가 권한과 여건을 갖추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①이사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②CEO 승계절차 관련 통제 강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에 걸맞는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외이사가
금융산업에 대해
깊고, 넓은 시각을 보유하고

독립적 지위에 맞는
책임있는 판단과 실천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금융연수원의 사외이사 연수프로그램 활용, 지주회사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또한,
사업다각화, 경영진 보수 및 평가(KPI) 등
핵심 경영현안에 대해서도
회사와 주주의 장기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의 사례를 볼 때,
사외이사가 안전에 대해 반대표결* 한 경우가
매우 드물며,

* '25년 8대 은행주 의결안건 총 993건 중 수정가결 9건, 보류 1건 외 전부 원안가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료요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 CEO의 승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회사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사회
중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당부드립니다.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은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 금융그룹은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따라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방안을 마련·추진 중

은행권의 사회공헌 규모도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상회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23년) 1.63조원 → ('24년) 1.89조원 → ('25년) 2.16조원(당기순이익 대비 9% 수준)

다만, 이제는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를 넘어,

사회공헌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가를 고민할 시점입니다.

수동적·일회성 지원*,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 4대은행 사회공헌실적 중 기부금 비중 : ('23년) 32.6%(3,181억) → ('25년) 22.8%(3,015억)

† '25년 전체 사회공헌 실적 중 은행 자발적 활동(출연금 제외) 비중은 29.5% 수준

** [소셜워싱 사례] 금고 계약 입찰을 위한 지자체 행사 협찬금, 콜센터
보이스피싱 대응 직원 인건비,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비용 등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각 금융그룹의 경영전략, 강점을 살린

중장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점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에도

효율성과 함께 소비자의 금융접근성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령층과 금융취약계층에게는
가까운 점포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융서비스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25년 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 수는 5,517개로, '22년 말 대비 314개 감소(△5.3%)

은행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의 혜택은 넓혀 가되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 은행대리업 시범운영('26.7월)을 개시하였으며, 추후 탄력점포 운영방안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

넷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최근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 ('24년) 7건(1.5억원) → ('25년) 12건(1,249억원) → ('26.1~9월) 11건(840억원)

이는 해외점포의 사고 예방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와의 법규 및 거래관행이 상이하고

거래구조가 다른 현지 특화 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리스크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인식부터

측정 및 대응의 단계별로 원칙*을 재정립해주시고

- * 거래구조상 취약점(Ex. 대출 취급, 상환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을 '리스크'로 정의하여 측정·관리하고, 계약 관련 본질적 업무 위탁 방지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제기준을 마련·운영

본점의 정책과 관리수준이

현지 영업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 * 해외점포 금융사고 사례 분석, 해외점포에 대한 본점의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주기적인 해외점포 검사, 내외부 금융사고 보고체계 개선 등

또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과 성과가

인사정책*, 성과평가체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등

-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
(Ex. 준법·리스크관리부서에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인사정책에 내부통제 역량 반영 등)
- ** 성과지표에 수익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성과를 균형있게 반영
(Ex. A은행은 지역영업그룹장 성과평가지 내부통제책임자 성과평가 결과 추가 반영)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중심의

시스템과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점포 인력축소,
디지털化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취약점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만큼,

* 소득서류 위·변조, 허위 임대차 계약서 활용 등 서류 진위확인 소홀 및 통상보다
결재단계가 축소된 2단계 결재 형태의 '영업점장 전결 대출'에서 사고가 집중 발생

** 내부통제 혁신방안('22.11.),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25.7 시행), '책무구조도'
도입('25.1.),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25.4.)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도
내부통제 혁신방안 등
기존의 제도 개선사항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현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 맺음말

오늘 논의되는 이슈들이
단절되는 단편적 주제가 아닌

금융산업의 견고한 성장과
지주 본연의 역할이라는
조금은 더 큰 방향성으로 발전하여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가장 오래 남고,
가장 강한 경쟁력이다.’ 라는 말처럼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금융 신뢰의 기반을 다져가는
뜻깊은 한결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독원도 금융산업의 파트너로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